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신정훈 나주시장

“혁신도시 걸맞는 ‘선진 나주’ 만들겠다”

신정훈 나주시장의 올해 최우선 시정 목표는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새로운 선진도시로 거듭나는 것이다.

또 나주 읍성권과 고분군, 삼한지 테마파크, 나주호 관광지 연계와 고대사 유적의 정비와 관광나주로 거듭나 자랑스러운 역사·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35%까지 저농업 인증면적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인증단계의 차별화를 기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첨단농업 적극 육성

또한 신 활력사업으로 나주배를 산업화하고 농산물 가공 산업에 주력해 첨단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봉황, 왕곡, 공산권에 대한 정주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남평 부도심 확장사업을 실시하고 송월 택지지구에는 역세권을 흡수해 경제·업무 중심지로 조성하게 된다.

신 시장은 “새로운 100년의 미래 나주 역사를 써나간다는 마음으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쾌적한 역사문화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TA에 대비해 총 경지면적의

목사골 위상 세우기

신 시장은 또 올해를 역사문화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삼고 있다. 국립 영산강 고고학박물관 건설이 본격화되고 국가 사적지로 품격이 높아진 나주목판아, 금성관 등을 천연 목사골의 위상에 맞게 체계적으로 복원, 정비에 나선다.

이들위해 노령연금제와 수발보협제 등 제도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 확충, 무료 경로식당 확대,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232만㎡ 규모의 미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주에 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기반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29만7천㎡ 규모의 국민임대 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남양유업, 풀센터 등 안정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를 꾀할 계획이다.

FTA에 대비해 총 경지면적의

완도군의회에서 예산심의의 과정이 산시의 도중 발생한 폭력사태로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행인지를 감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견제와 발생해는 당연한 일이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고 폭력과 고성으로 대응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지방자

군의회 폭력사태 이전 사라져야

발했다. 이날 김 의원은 ‘포코이단(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에 함유된 기능성 물질) 사업’에 1억5천여만원의 예산 통과를 요구하는 이 모 과정의 설명에 대해 “불성실한 사업”이라며 회의실 문에 물병을 던지는 폭력을 행사했다.

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도 폭력을 앞세우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발전 위해 군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 폭력사태로 집행부와 의회간 틈새가 벌어지는 것은 온 전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은조 (사회2부 완도주재)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불가피하고 군 의회에서는 철저한 예산안 심의로 정당한 집행

서울대 진학률 전국 최고

전남과학고, 정원 14.5% 10명 합격

전남 과학고등학교가 전국 최고의 서울대 진학률을 기록했다. 전남 과학고는 2008년 대입전형에서 정원의 14.5%인 10명이 서울대에 합격했다.

통한 실험실습 중심의 학습자 중심교육이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해남 부호·내사지구 323세대 식수난 해소

해남을 부호·내사지구 323세대 720여 명의 주민들이 오는 10월부터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

해남을 부호·내사지구는 염분 유입으로 지하수 개발이 어려워 주민들이 직접 차량을 이용해 인근 약수터 등에서 식수를 운반하는 등 고질적인 식수난을 겪어 왔다.

해남군은 식수난 해결을 위해 오는 10월 완공 목표로 지난해 10월 군비 12억원을 들여 해남을 용정리에서 부호리까지 총 연장 18.4km의 급·배수관 시설공사에 착공했다.

권운준 교장은 “맞춤형 진학지도를



담양 메타세쿼이아 눈꽃 터널. 호남지역에 4일째 폭설이 이어진 1일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눈꽃 터널이 빛낸 환상의 설경을 만끽하고 있다.

고향 학교에 5억5천만원 쾌척

이광래 우미건설 회장 강진 중앙초등학교에



축 분야의 중견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 회장은 지난해 국가 유공자 노후주택 개

강진출신 기업인이 고향 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로 거액의 기금을 기탁했다. 강진 군민장학재단은 “구랍 26일 경기도 성남 소재 이광래(64·사진) 우미건설 회장이 중앙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로 5억 5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강진군과 강진교육청은 이 기금으로 중앙초등학교의 담장을 없애고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 1982년 주택사업을 시작, 우미건설을 토목·건

이 회장은 “강진군의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출향인의 한사람으로 작은 보탬을 주기 위해 기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어린 고향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합평군 분권담당 부서

12개 부서서 賞 휩쓸어 사업비 118억 확보

합평군 자체행정과 혁신분권 담당 부서가 지난 한해 각종 평가에서 상을 휩쓸어 부상으로 인센티브와 사업비 118억여원을 확보했다.

합평군 자체행정과 혁신분권팀은 지난해 신활력사업과 균형발전, 행정 혁신 평가 등 모두 12개 분야에서 상을 받았다.

특히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에 선정돼 87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에 뽑혀 20억원, 신활력사업 전국 최우수 군에 선정돼 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또 전국 지방행정혁신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한국공공자치연구회 주관 전국대학에서 행정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전국 균형발전 평가 최우수상을 비롯해 지역혁신협의회 평가 및 제2회 지방행정 혁신만마당 전시회 우수기관, 광주·전남 지역혁신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합평=박영진기자 py4079@

2009년 도민체전 영광에서 열린다

오는 2009년 제 48회 전남 도민체전이 영광에서 열린다.

영광군은 지난해 10월 종합 체육시설인 영광 ‘스포티움’ 완공을 계기로 경기단체 별로 각종 대회와 동계훈련 유치 전담반을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그 결과 2009년 도민체전을 유치했으며 이 밖에도 전남도 장애인체육대회와 전남도 생활체육대회, 전국체전 체조경기, 전국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전국 생활체육 축구대회 등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군민 친철운동”을 전개하고 숙박·요식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남 도민체전은 오는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고흥에서 열린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대인동심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금매매. 첨단중심 상업매매. 첨단 원룸 건물 급매. 첨단 인근 녹지 금매매.

부광공인중개사. 전원주택(부지) 전문업소. 전원주택단지 분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

특급상가 매매·임대. 북구 용봉동 부름 상가주택. 전대후문 노래방 215㎡(65평). 전대후문 대로변 1층 166㎡(50평) 상가.

법원경매 전문회사. 성공적 파트너 / (주)옥션코리아 무료상담. 근거리/근린상가 상담. 속박시설/다세대/빌라/월세 상담.